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들 체육운동의 자부심을 건 10회 연속 경기력상 도전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국내 최대 규모
의 생활체육 큰 잔치인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25일부터 28일
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울산 지역 60여개 경기장에서 41개 정식종목이 진행된다.

지난 2001년 생활체육 참여를 확산하고 지역·계층 간 화합에 기여
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민생활체육전국한마당축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대회가 취소됐고 2022년에는 분산 개최됐다가 지난
해 경북에서 정상 개최됐다.

28일까지 울산서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팡파르'

41개 종목에 총1994명의 선수단 파견 '인원 최대'
30개 종목 입상 목표... 불링 등 15개 우승 '겨냥'
봄소풍 콘셉트 개최식서 가수 남진 '단독 콘서트'

정상 개최 1년 만에 울산에서 다시 모이는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
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명예를 걸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

2001년 대축전 출범 이후 20회 연속 최다 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종합우승 격인 경기력상을 9회 연속 수상한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도 21회 연속 최다 종목 우승과 10회 연속 경기력상 수상을 노리고
있다.

경기도 선수단은 17개 시도 중 최대 규모인 41개 종목에 199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지난 해 30개 종목에서 입상했던 경기도는 올해도 30개 종목 입상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게이트볼과 롤러, 배드민턴, 불링, 승마, 육상, 자전거,
축구, 줄넘기, 철인3종, 축구, 탁구, 태권, 테니스, 합기도 등 15개 종
목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고 검도와 농구, 빙상, 산악, 수영, 야구, 우
슈, 체조, 핸드볼 등 9개 종목은 준우승에 도전한다.

또 국악기공과 소프트테니스, 스쿼시, 씨름, 태권도, 파크골프 등 6
개 종목은 3위 입상이 목표다.

이 가운데 탁구는 16회 연속 정상에 도전하고 축구는 8연패, 테니
스는 8연패, 탁구 6연패, 족구 4연패를 기대하고 있으며 육상과 합기
도는 각각 3연패, 스쿼시, 씨름, 자전거는 각각 2연패를 노린다.

경기도 선수단 중 최고령 선수는 1936년 생으로 올해 미수(米壽)
를 맞는 이영옥 여사(88)가 우수 종목에 출전하고 최연소 선수는 롤
러에 출전하는 하이재 군(7)이다.

올해 대회부터 최근 2년간 참가했던 선수의 출전을 제한 했던 규
제가 사라졌으며 경기 종목도 정식종목 40개, 시범종목 3개에서 41
개 정식종목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빙상과 핸드볼이 정식종목으로 전환됐고 줄다리기 종
목은 폐지됐으며 풋살종목은 축구 5인제로 변경됐다.

이번 대회 개최식은 26일 오후 5시30분부터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어서오이소~ 봄소풍, 울산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최
식은 주제에 걸맞게 소풍 분위기를 연출한다.

울산시는 '울산 봄소풍에서 펼쳐지는 운동회'라는 연출 방향으로
기존의 개최식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운동장에 돗자리와 텐트를 참
가 선수단이 봄소풍 분위기를 느끼게 할 계획이다.

개회식 식전행사는 '울산 보물찾기', '내사랑 울산', '다이나믹 울
산', '가슴이 뻥다! 울산'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되는 공식 행사는 개식통고에 이어 동
호인 입장, 개회 선언, 동호인 다짐, 주제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선수단은 차기 개최지인 전남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
역시, 서울특별시 순으로 입장하며 경기도는 6번째로 모습을 드러낸
다. 선수단의 맨 마지막은 개최지인 울산광역시로 장식한다.

'운동은 어려워!', '추억의 자전거', '펼쳐라! 생활체육' 등으로 진행
되는 주제 공연에는 울산 지역 일반 시민들이 포함된 출연진이 생활
체육 대축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화려한 드레스코로 대회 개막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식후 행
사로 가수 남진의 단독 콘서트가 이어진다. 90분간 진행될 남진의 단
독 콘서트는 울산홍보대사 방송인 이용식 씨가 사회를 맡는다.

울산시는 한·일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 참여한 일본 생활체육 동호
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축전 개회식 최초로 실시간 동시통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폐회식은 4월 28일 오후 4시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진행되며 종합시상에 이어 차기 개최지인 전라남도에도 대회기 전달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축전을 마무리한다.

정민수 기자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울산봄소풍에서
펼쳐지는 운동회

1_ 지난 해 전국생활체육대축
전 육상, 씨름, 축구, 에어로빅·
합체 경기 모습(왼쪽부터) 2_
지난 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에서 경기력상을 수상한 경기
도선수단 모습. 3_ 지난 해 전
국생활체육대축전 배구 경기
모습. 경기도체육회 제공

“성적보다 안전·건강이 최우선... 가능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도 선수단 전원 대상 '안전보험' 가입 경기력 향상 위해 출전비 확대 지원

“체육운동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시길 당부드
립니다.”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1994명의 선수
단을 이끌고 출전하는 이원성 경기도선수단

장(경기도체육회장)은 출전 선수들에게 “체
육운동의 자긍심을 갖자”고 당부했다.

이 단장은 “이번 대축전은 코로나19 확산
으로 침체됐던 생활체육이 본격적으로 활기
를 찾은 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활체
육 큰 잔치”라며 “무엇보다 참가하는 모든 동
호인들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부상없이 대
회를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대회 참가선수단의
안전에 대해 선수단 전원의 안전보험에 가입
하고 종목별 안전관리관을 지정 운영할 계획
이다.

도체육회는 또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
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협업체 지난 해 7만

원이었던 출전지원비를 올해 9만5000원으로
인상 지원했다.

이 단장은 “동호인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체육회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
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축전에 출전하
는 경기도선수단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
과 격려를 해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경기도선수단은 지난 해
에 이어 전 종목에 출전하며 최다 종목 우승
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성적도 중
요하지만 참가하는 동호인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기력 향상에 최대한 중

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끝으로 “경기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들을 위해 도
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한
뒤 “경기도답게, 경기도만의 멋진 경기력으
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경기도선
수단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
했다.

정민수 기자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선수
단을 이끌고 출전하는 이원성 경기
도선수단장(경기도체육회장)이 출전 소
감을 말하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제공

